

## 기쿠가하마 해변

기쿠가하마는 하기 만에 면해 있으며 하기의 북단에서 동서로 뻗어 있는 해안입니다. 서쪽 시즈키야마 산에 우뚝 솟아 있는 하기 성터에서는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어 북동쪽에는 가사야마 산과 인근 섬들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1850년대 초엽, 일본은 이른바 ‘함포 외교’로 인해 구미 열강과의 무역을 위한 개국을 해야만 했습니다. 개국에 반대했던 조슈번은 서양의 배를 포격했고, 이것이 바로 1863년에 발발한 시모노세키 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조슈번은 추가적인 분쟁에 대비하여 하기의 주민들에게 기쿠가하마에 방어용 토루를 쌓아올리라고 명했습니다.

하기의 무사들 대부분은 시모노세키 전쟁으로 인해 전쟁터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물론, 상급 무사의 부인들까지 고급 기모노를 입은 채 ‘오토코나라(남자라면)’라는 노동가를 부르며 작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오늘날까지 지역의 민요로 널리 부르고 있으며, 당시에 만들어진 토루는 ‘오나고다이바’라고 불렸습니다. 두려워했던 서양 포함의 공격은 없었지만, 당시 토루의 일부는 지금도 바다에서 조금 후미진 곳에 남아 있으며 석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주소: 야마구치현 하기시 호리우치 2구

오시는 길: ‘기쿠가하마이리구치’ 버스정류장에서 도보 1분(하기 순환 마루 버스 서쪽 코스)

Google 지도 링크 확인하기